



일주문



법장사 천불 점안식 법문
무비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11일 오전 10시 봉화산 법장사에서 열리는 '천불봉안 점안식' 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차문화대상 학술상 받아
백운 미륵사 주지는 6일 하얏트 호텔에서 명문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2001 차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소년기장등기 비자
해충 부산 옹호종합사회복지관장은 3일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기금 마련 일일 바자회를 열었다.



대원사 합동 천도재
현장 보성 대원사 주지는 7일 오전 10시 티베트 박물관에서 개관 3주년 기념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외국인 탈춤·사물 경연
심산 봉도사 부산포교원장은 25일 부산 포교원 법당에서 외국인 탈춤 및 사물 경연대회와 외국 동전 전시회를 연다.



11월 다보법회서 법문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강의한다.



동국대 교직원 동문회장에
이원주 명성여고 교장은 10월 26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동국대 교직원동문회 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사 청년회장 맡아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은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9대 회장단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씨



김진호 前 새천년민주당 안보특별위원장이 10월31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은 군 북부시절부터 산간벽지에 있는 여러 사찰의 불사를 지원하고 보수를 하는 등 불심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95년 제1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2001년 미국 하와이대 객원연구원으로 일해왔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오른쪽 첫번째) 초청 만찬에 참석한 중단협 회장 정대스님(왼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연다

"한국불교 역사관 건립에 200억 지원"

남궁 문화부 장관 불교지도자 초청 만찬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태고종 총무원장 해초,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과 각각종 총무원장 호암 대장사 등 26명의 교계 지도자들은 10월 31일 신라호텔에서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 초청 만찬식에 참석, 전종단이 힘을 모아 월드컵 성공기원법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진 장관은 "불교 1년도 채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불교계 대덕스님들께서 도와 달라"며 "문화관광부에서

는 해동불교의 전통맥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이 종교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정부예산 200억원을 2년에 걸쳐 나누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앞으로도 불교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문화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추진 중인 템플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유적은 국민 모두의 재산"

나한상 300점 출토지 국가헌납 김병호 씨

석조 나한상이 출토된 땅 소유자가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그 땅을 국가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창원 2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호(49) 씨는 조선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한상 300여 점이 발굴(341호 16면 기사 참조)된 밭 332평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이 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한상을 봉안했던 나한전 건물터도 함께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은 곳이다. 해마다 전국에서 300건이 넘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지만 땅 소유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땅을 기증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김 씨는 "얼마 전 현장설명회를 찾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돌로 만든 나한상이 나한전과 함께 무더기로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중요한 불교 유적이란 불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곳에 절을 짓기 위해 준비 공사를 하던 김 씨는 지난 5월 높이 30cm, 어깨 폭 20cm 안팎의 소형 석조 나한상 60여 점이 출토되자 영월군에 이를 신고해 소중한 유물과 유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김 씨가 기증한 땅을 시가로 치면 700만원 정도 되지만, 액수를 넘어 문화재 보존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소중한 불교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절에 몇백만 원씩 불사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이 땅에 대한 국가기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증 절차는 간단하다. 김 씨가 국가 무상기증 증명서를 첨부해 등기 이전만 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 땅을 국가 소유로 할지, 영월군 소유로 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권형진 기자 janny@buddhapia.com



해안스님 추모·중창 불사 회향

서울 전등사주지 동명은 10월 28일 전등사 대웅보전 중창불사 회향 및 해안스님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을 비롯하여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 대원사주지 보선, 화엄사주지 종걸, 서운사주지 법현, 신홍사주지 마근, 송광사주지 현봉, 금산사주지 평상스님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만일염불회 향천선원 개원

정토사 만일염불결사회(회장 조보광)는 10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장충동 염불원 향천선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스님과 회주 보광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이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된 향천선원은 정토사 만일염불결사 500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만일염불결사회는 향천선원에 봉안된 아비타부처님의 점안식을 가졌다.



불자련 횡성서 산나물 씨뿌리기 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택)는 10월 28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일대에서 '산나물 씨 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국토 푸르게 가꾸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47명을 포함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해, 씨 뿌리기 외에도 결실아동 도시락에 쓰여질 배추 수확까지 함께 했다.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수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10월 27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1기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이사장 정여스님을 비롯해 실동군 부산시 교육감,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석규와 3명이 최우수상을, 김명옥의 6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80년 공부한 불교철학 담아냈죠"

컴퓨터 그림전 여는 원의범 동국대 명예교수



해남 우수영 사람들이 '해남 들노래'를 부르고 있다.

가을밤 산사 수놓은 환상 선율

해남 미항사 작은음악회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10월 27일 세심당에서 제2회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 주제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소종과 밭고, 예불로 시작한 음악회는 미항사 창건서사시 낭송, 해남들노래, 양동옥 정태석씨의 가곡과 가요, 김세화씨의 섹스폰 연주, 정기열씨의 판소리, 김광복씨의 태평소, 전야매마을 주부들의 남도민요, 풍물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음악회는 대문사 일지암 여연스님, 대문사 총부 법인스님, 백련사 주지 해일 스님 등과 주빈 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컴퓨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된 뒤에도 '무얼 보면 그리고 싶어' 이면지에 틈틈이 스케치를 하곤 했다. 정년퇴임 전까지도 '컴맹'이었던 원 교수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손자가 '그림판에 한번 그려 보라'고 권해 서였다. 4년 동안 원 교수가 마우스를 이용해 그린 84점 속에는 평생 불교 공부, 철학 공부,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평이다. 권형진 기자



석용산 대포교사 법신사리

사 리

태양 햇바닥
녹아 댕헨 이슬이여!
허공꽃
부처 고뇌로 맺어 이은
니승 목걸이여!
그리하여
환희불 고뇌의 용광로도
녹일 수 없는
연꽃 환생이구려!

석용산 대포교사 사리친견대법회

청정하시며 두루하신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약하며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벌주어 지옥 보내는 사상을 뒤로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는 나아가 악독한 지옥 중생들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력에 동승하여 바라는 마음 버리고 주고픈 마음으로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지장사상을 통한 불교대중화에 전심전력을 다하셨고, 억울한 누명으로 온갖 고통을 감내하시며 인욕과 전법수행으로 지장보살의 화신처럼 살다가신 석용산 큰스님!
부처님의 가피공덕과 지장기도의 대원력, 포교의 수행이 또 하나의 참된 수행임을 증명하여 주교자 사리(희노애락과 고통을 인으로 삭여 만들어지는 결정체, 부서지질 않고 녹지 않으며 영롱한 빛을 냄)를 남기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교계의 대덕법사를 모셔 법문과 함께 사리친견법회를 봉행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인간성숙, 소원성취를 이루는 인연 되소서

불기 2545년 11월 좋은날
지장불교근본도량 공덕원 사부대중 합장

문의 : 부산 (051)625-2253, 대구(053)741-0088,

사리친견대법회

- 대구 : 11월 8일 대안 큰스님(해인사 선덕) 9일 불공 및 기도 10일 도봉 큰스님(동화사 원로)
■ 부산 : 11월 12일 백운 큰스님(미륵암 주지) 13일 불공 및 기도 14일 해충 큰스님(감로사 주지) 15일 불공 및 기도 16일 박완일 회장(한국사회교육연구회 회장)

■ 시간 : 법회 및 불공 - 오전 11시
사리 친견 - 오전 11시 ~ 오후 6시